

“에휴~” 광주 택시요금 인상 소식에 시민들 ‘한숨만’

22일부터 ‘2km 4300원 → 1.7km 4800원’ 적용
시민 “서비스는 뒷전” 업계 “물가상승률 반영”

광주 택시 기본요금 인상(22일)을 일주일이 지나고 시민들과 업계의 반응이 극명하게 엇갈리고 있다.

시민들은 팍팍한 살림살이에 택시요금까지 인상되는 것에 부담을 느끼는 반면, 택시 업계는 기대만큼의 인상분은 아니지만 대체적으로 환영한다는 입장이다.

14일 광주시 등에 따르면 오는 22일부터 중형택시의 기본요금은 현행 2km 4300원에서 1.7km 4800원으로 변경된다. 광주 택시요금 인상은 2023년 7월 이후 2년 만이다. 거리요금은 기존 134m당 100원에서 132m당 100원으로 오른다. 기본거리 역시 300m로 축소된다.

2년 만에 택시요금이 인상된다는 소식에 시민들 대다수는 ‘가득이나 고물가로 힘든 힘든 가게 상황에 부담만 커지고 있다’며 강한 불만을 드러냈다.

이날 오전 광주 종합버스터미널 인근 택

시 승강장에서 만난 40대 김씨는 “치솟는 물가에 생활비 부담이 상당한데 택시비가 오르면 당황스럽다”면서 “집이 많아 집에 가려면 택시를 타야 하는데 환승해야 하는 버스를 타기도 엄두가 나지 않는다”고 한탄했다.

또 인상 때마다 약속했던 고객서비스가 개선되지 않고, 요금만 오르고 있는 모습에 ‘운수업체 배만 채워주는 꼴’이 아니냐는 비판의 목소리도 곳곳에서 나왔다.

심야 교통수단 확대 등 교통복지 개선도 요금 인상과 함께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도 있었다.

최모씨(52)는 “이제는 택시비도 무시워서 술자리도 멀리해야겠다”며 “물가가 오르는 것을 체감하고 있지만 자주 이용하는 택시비가 오른다고 하니 더 피부에 와닿는 느낌이다”고 말했다.

반면, 택시 기사들의 입장은 달랐다. 대



택시요금 인상을 일주일 앞둔 14일 광주 종합버스터미널 인근 택시 승강장에서 시민들이 택시에 오르고 있다.

최기남 기자 bluesky@gwangnam.co.kr

다수는 ‘시민들도 부담스럽겠지만 이제라도 올라 다행이다’, ‘예산 폭에 못 미쳤다. 더 올라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시간이 지나면 거부감이 개선될 것이라는 설명도 있었다.

택시기사 A씨는 “다른 직장인들이 회사를 다니듯이 택시기사도 직업이고 노동이다. 하지만 모든 물가 상승률을 고려해 봤을 때 택시요금 1000원은 그렇게 큰 금액이라는 생각은 안 든다”면서 “인상 초기에

는 반감이 크고, 한동안 손님이 감소할 것이라는 우려도 있다”고 전했다.

한편, 광주시는 용역, 공청회 등을 거쳐 택시요금 인상을 결정했다.

택시운송사업조합 관계자는 “여러 유관

단체와 연계해 택시기사들에 대한 친절교육 등을 지속적으로 진행하고 있다. 시민이 마음 편히 택시를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윤웅성 기자 yo1404@gwangnam.co.kr

음주차량 뒤쫓자 도끼 위협

만년필

○·만취 상태로 운전하던 40대가

자신을 쫓아온 시민에게 도끼를 꺼내 위협한 혐의로 경찰에 체포.

광주 광산경찰은 14일 도로교통법 위반 음주운전·특수협박 혐의로 A씨를 검거.

A씨는 전날 오후 10시20분 북구 용봉동에서 광산구 장덕동까지 10여km를 음주운전한 혐의를 받아.

이때 A씨 차량은 차선을 넘나드는 곡에 운전했고, B씨는 음주운전을 의심하고 뒤쫓았다고.

A씨는 목적지에 도착한 뒤 자신을 따라온 B씨에게 ‘왜 쫓아오느냐’고 따지며 차량 내부에 있던 도끼를 꺼내 들어.

이에 B씨는 신변의 위협을 느끼고 112에 신고했고, 경찰은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치(0.08%)를 초과한 것으로 드러나.

임정호 기자 ljh4415@

전남 여수서도 ‘캠보디아 취업·실종’ 접수

4개월째 행방 묘연…경찰 수사 착수

전남 여수에서도 캄보디아로 출국한 이후 실종됐다는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14일 전남경찰청에 따르면 올해 6월 A씨(38)와 연락이 닿지 않는다는 실종 신고가 여수경찰에 접수됐다.

올해 5월 태국으로 출국한 A씨는 가족

에게 ‘아는 형과 취업을 위해 캄보디아로 넘어간다’는 휴대전화 메시지를 남겼다.

하지만 이후부터 A씨와 연락이 두절되자 가족이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경찰은 외교부를 통해 현지 대사관에 ‘재외국민 소재 확인’을 요청했다. 하지만 4개월째 A씨의 행적은 확인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광주에서는 캄보디아와 태국으로 출국한 가족이 연락 두절됐다는 신고가 지난해부터 현재까지 3건 접수돼 경찰이 소재 파악과 함께 범죄 연관성 등을 조사하고 있다.

경찰은 실종된 이들의 최근 행적을 들여다보는 한편 캄보디아에서 발생한 범죄 집단 피해 등 여러 가능성을 열어두고 수사를 벌이고 있다.

임영진 기자 looks@gwangnam.co.kr

전남대 로스쿨, 올해 법관·검사 등 22명 배출

전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은 14일 “올해 신입 법관 8명, 검사 5명, 재판연구원 22명을 배출했다”고 밝혔다.

올해 법관 임용은 법조 일원화 정책에 따라 법조경력 5년 이상의 법률가 중에서 선발됐다.

전국적으로 사법연수원 출신 21명과 법

학전문대학원 출신 132명이 지난 9월25일 대법원에 의해 임명됐고, 이중 8명이 전남대 로스쿨 출신이다.

전남대 로스쿨은 지난달 발표된 2026년 신규 검사 임용시험에서도 5명이, 2026년 재판연구원 신규 임용시험에서는 재학생 22명이 최종 합격했다

재판연구원 선발은 전국 고등법원 권역별로 이뤄졌으며, 전남대 로스쿨은 서울 6명, 수원 3명, 대전 3명, 부산 1명, 광주 9명 등 전국적으로 고르게 합격자를 배출했다.

재판연구원은 사건의 심리·재판 관련 조사·연구를 담당하며 판사를 보조하는 법률전문가로 향후 경력 법관 임용의 주요 후보군으로 꼽힌다.

김인수 기자 joins@gwangnam.co.kr

65세 이상 어르신 등 코로나19 예방접종

전남도, 위탁의료기관·보건소서 독감 동시 접종도

전남도는 15일부터 보건소와 위탁의료기관에서 고위험군을 대상으로 코로나19 예방접종을 본격 시행한다.

이번 접종은 65세 이상 어르신, 생후 6개월 이상 면역저하자와 감염취약시설 입원·임소자를 대상으로 실시된다.

특히 65세 이상 어르신은 코로나19와 인플루엔자(독감) 예방접종 대상에 모두 해당되므로 한 번의 접종 기관 방문으로 편리하게 ‘동시 예방접종’을 받을 수 있다.

코로나19와 인플루엔자 모두 고령자, 면역저하자, 기저질환자에게 중증 위험이 높은 질환이다.

특히 코로나19의 경우 75세 이상 어르신은 감염 시 사망 위험이 일반 성인보다 10배 이상 높고, 고령층의 입원율은 독감에 비해 약 5배 높게 나타난다. 인플루엔자 또한 폐렴, 심근염 등 합병증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이번 접종은 15일부터 시작되며, 요양

병원·요양시설 등 감염취약시설 입원(임소)자와 면역저하자, 75세 이상 어르신을 중심으로 시행한 뒤 20일부터 70~74세, 22일부터 65~69세 순으로 확대된다. 접종대상자는 주소지와 관계없이 전국 위탁의료기관, 보건소에서 신분증을 지참하면 접종 가능하다.

올해 코로나19 예방접종에는 새로운 변이주인 LP.8.1 계열에 대응하는 백신(화이자·모더나 등)이 사용된다.

접종대상자는 접종 전 건강 상태를 확인하고, 발열 등 증상이 있을 경우 회복 후 접종해야 한다. 접종 후에는 20~30분간 의료기관에 머물며 이상반응 여부를 관찰하고, 귀가 후에는 충분한 휴식을 취해야 한다.

정광선 전남도 보건복지국장은 “백신은 지역사회 감염병 확산을 방지하고, 나와 이웃을 지키는 가장 확실한 예방법이다”며 “예방접종 일정에 맞춰 꼭 접종해 달라”고 당부했다. 박정열 기자 holbul@

❤️ **동행** 지역소상공인

○ 광남일보 ○ (사)광남신문계축회

농장다리

농장다리는 육전, 녹두반대떡이 맛있습니다.

추억이 있는 농장다리

녹두반대떡

육전

농장다리 웰빙밥

062-222-7080

광주 동구 동명로69번길 2 (농장다리 옆)

전류 - 육전/녹두반대떡/애물파전/동태전/송이전/굴전

밥류 - 김밥/황태국/애호박찌개/황태떡국/황태굴떡국

특별메뉴 - 송이회무침/동태양념구이